

손흥민 vs 네이마르 맞붙는다

브라질 축구협회, 11월19일 한국과 평가전 발표

벤투호, 11월15일 레바논과 카타르 월드컵 지역예선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는 11월, 최강 브라질과 평가전을 갖는다. 장소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다. 브라질 축구협회는 14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브라질 대표팀이 오는 11월15일 아르헨티나와 11월19일 한국과 평가전을 치른다"고 전했다.

아르헨티나전 장소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이고 이후 UAE로 장소를 이동해 한국과 아부다비에서 격돌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축구협회는 아직 공식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축구협회는 한국대표팀이 11월 15일 레바논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4차전을 원정 경기로 치러야하는 일정과 함께 중동에서 또 다른 평가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상대가 브라질로 확정됐다. 브라질 축구협회는 모하메드 빈 자예드 스타디움에서 한국전이 열린다고 구체적으로 경기장까지

소개했다.

브라질은 자타가 공인하는 축구의 나라로 10월 현재 국제축구연맹(FIFA) 3위에 올라 있다. 월드컵 통산 5회 우승에 빛나며 남미대륙 선수권인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9 번이나 정상에 올랐다.

슈퍼스타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를 비롯해 피르미누(리버풀), 쿠티뉴(바이에른 뮌헨), 에데르송, 제루스(이상 맨체스터 시티), 카세미루(레알 마드리드) 등 톱클래스 선수들이 즐비한데, 한국전에 앞서 라이벌 아르헨티나와의 일전이 있기 때문에 정예멤버의 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 지금껏 브라질과 총 5번 격돌해 1승4패 열세를 보이고 있다. 유일하게 거둔 승리는 지난 1999년 3월28일 잠실에서 열린 친선경기로, 당시 김도훈 현 울산현대 감독의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승리했다.

‘태극 에이스’ 양현종의 의지 “대표팀은 부담 아닌 의무”

이젠 국가대표팀 투수조의 최고참 격이 됐다. 그렇기에 양현종(KIA)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양현종은 11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WBSC 프리미어 12' 국가대표팀의 첫 훈련 자리에서 최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회에 임하는 각오를 언급했다.

일단 정규시즌이 끝난 뒤 약 20일 가량의 휴식기를 가진 양현종은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다”면서 대표팀 합류 전 휴식기 동안의 근황을 전했다.

전날(10일) 대표팀 소집에 임한 양현종은 대표팀 선수들과 첫 대면을 한 소감으로 “어색하지는 않다. 선수들과 정규시즌을 다 같이 뛰었던 선수들이라”면서 “어

색하다기 보다 대표팀은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단 양현종에게 주어진 임무는 에이스, 그리고 투수진의 리더 역할 등 여러 임무가 있다. 양현종은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당연히 잘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시

즌과 마찬가지로 야수들을 믿고 던질 것이고 대표팀에서는 당연히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던질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이번 프리미어12 대회다. 하지만 당장의 경기만 바라보고 있다. 그는 “도쿄 올림픽에 가는 것을 아직 생각해본 적은 없다. 당장 이번 대회 예선, 그리고 첫 경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당장의 대회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美 언론 “다저스, 류현진 영입전 참가 주저할 것”

다저스 전문 매체 다저블루 전망

LA 다저스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재취득한 류현진(32)과 재계약을 주저할 것이라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다저스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다저블루는 14일(한국시간) 류현진의 올 시즌 놀라운 활약을 돌아보며 그의 FA 계약을 전망했다.

다저블루는 “2019년 다저스의 선발진 평균자책점은 3.11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1위였다”며 “그 중 류현진의 활약은 아무도 예

측할 수 없었다”고 류현진의 활약을 짚었다.

이어 “사타구니 부상으로 잠시 주춤했던 2018년을 보낸 뒤 더욱 강해진 류현진은 다저스의 켈리파임오퍼를 받아들이며 1년 더 다저스에서 뛰었다”고 지난해 FA 자격을 얻은 뒤 다저스에 잔류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다저스의 켈리파임오퍼를 받아들이는 류현진은 올 시즌을 마친 뒤 다시 FA 자격을 얻는다. 월드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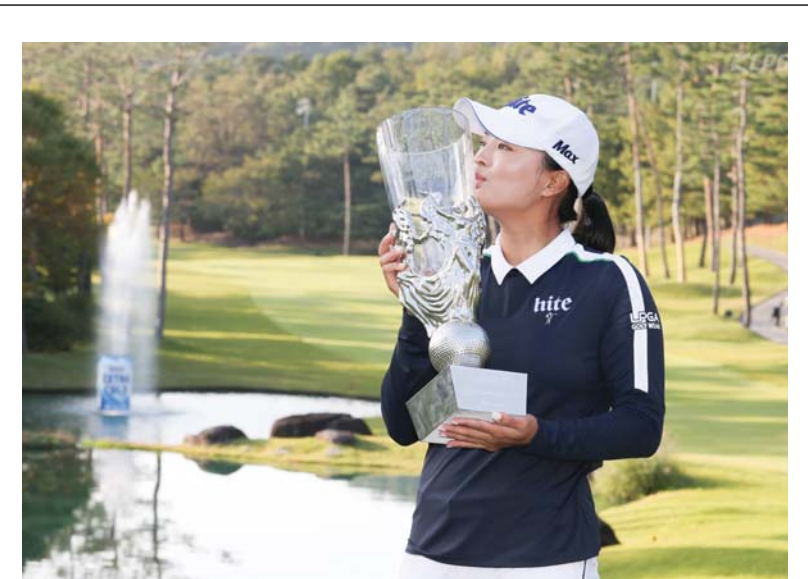
즈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류현진은 다시 FA 협상을 벌일 수 있다.

켈리파임오퍼는 구단이 FA 선수에게 제시하는 1년 계약안으로 당해 메이저리그 상위 12명 연봉 평균치로 1년 연봉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류현진의 올 시즌 연봉은 1790만달러(약 210억원)였다.

류현진은 올 시즌 자신의 연봉을 뛰어넘는 성적을 남겼다. 29경기에서 182%이닝을 소화하며 14승5패 평균자책점 2.32를 기록한 것. 평균자책점은 메이저리그 전체 1위다.



이같은 활약에 다저블루는 “류현진은 몸상태를 떠나 훌륭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성공적인 FA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다저스는 류현진의 부상 이력과 그의 나이(32세) 때문에 재계약을 주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진영이 13일 경기 여주 블루헤런CC에서 열린 '제20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에 입맞추고 있다.

고진영,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우승... '소맥 공약'도 지켜

'세계랭킹 1위' 고진영(24·하이트진로)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메이저대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 우승을 차지했다.

고진영은 13일 경기도 여주 블루헤런 컨트리클럽(파72·6736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라운드에서 바디 1개와 보기 1개로 이븐파 7타를 쳐 선두자

3라운드까지 1타 차 단독 선두였던 고진영은 이날 타수를 줄이지 못했지만 경쟁자들이 추격에 실패,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다.

우승 후 고진영은 “후원사 대회에서 우승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3년 전에도 이 대회에서 정상을 차지했는데, 여러모로 이번 우승과는 큰 차이가 있는

“소주가 적어 살짝 비울 아쉬워” 우승 후 여유

장하나 이어 2번째로 누적 상금 30억 돌파

리를 지켰다.

최종합계 3언더파 285타를 찍어낸 고진영은 최혜진(20·롯데) 등 공동 2위 그룹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2017년 9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이후 약 2년 만에 거둔 국내 대회 우승이다. 고진영의 KLPGA 투어 통산 승수는 10승이 됐다.

장하나(27·BC카드)에 이어 2번째로 KLPGA 투어 누적 상금 3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현재 장나는 37억6506만7893원을 상금으로 쌓았다. 고진영의 누적 상금은 30억2497만2694원이 됐다.

것 같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어 “3년 전과 지금의 후원사가 다르다”며 웃은 뒤 “3년 전에는 KLPGA투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중에 우승을 했고 지금은 미국에서 활동하다 잠시 한국에 돌아와 우승했다”고 3년 전과 차이를 설명했다.

우승이 확정되자 고진영은 대회 전 공약대로 소주와 맥주를 우승컵에 따라 “소맥”을 제조, 시원하게 들이켰다.

고진영은 “소주가 적어서 살짝 비울은 아쉬웠다”며 웃음을 보였다. 이어 “하지만 맛있고 즐겁게 마셨고, 살짝 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명품하는 행복의군민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